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경남¹, 강은희^{2*}

¹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²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in Major on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young-Nam Kim¹, Eun-Hee Kang^{2*}

¹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²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P시에 있는 4개의 간호학과 재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자아존중감 3.40 ± 0.53 점, 외모만족도 2.96 ± 0.56 점, 전공만족도 3.80 ± 0.61 점, 취업스트레스 2.23 ± 0.75 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성별 ($t=7.40, p=.007$), 전공선택동기($F=3.24, p=.023$), 대학생활 만족도($F=16.72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r=-.433, p<.001$), 외모만족도($r=-.307, p<.001$), 전공만족도($r=-.534, p<.001$)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공만족도($\beta=-.371, p<.001$), 자아존중감($\beta=-.166, p=.026$), 외모만족도($\beta=-.132, p=.045$), 전공선택동기($\beta=.163, p=.006$), 성별($\beta=.131, p=.033$)이었고, 이들 변수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35.6%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적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on the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194 students from four colleges of nursing in P-province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test, ANOVA, Pearson's and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with dummy variables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scores: self-esteem 3.40 ± 0.53 , appearance satisfaction 2.96 ± 0.56 , satisfaction with the major 3.80 ± 0.61 , and employment stress 2.23 ± 0.75 .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ployment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ere observed in gender ($t=7.40, p=.007$), entering nursing college motivation ($F=3.24, p=.023$),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F=16.722, p<.001$). Employment stres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r=-.433, p<.001$), appearance satisfaction ($r=-.307, p<.001$), and satisfaction in major ($r=-.534, p<.001$). Th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beta=-.371, p<.001$), self-esteem ($\beta=-.166, p=.026$), appearance satisfaction ($\beta=-.132, p=.045$), entering nursing college motivation ($\beta=.163, p=.006$), and gender ($\beta=.131, p=.033$) confirmed as a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stress and accounted for 35.6% of the variance. Based o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mployment-competency reinforcement programs to increase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major,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o reduce the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Nursing,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Satisfaction In Major, Employment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Kang(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email: ehkkang@hanmail.net

Received October 30, 2019

Revised November 26, 2019

Accepted March 6, 2020

Published March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 위해 학업성취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때이다[1]. 취업준비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두려움과 불안 같은 심리 사회적 어려움까지 초래되는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2]. 최근의 경기침체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어려운 사회환경은 생애 첫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과도한 경쟁과 함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3]. 따라서 대학생들의 주요 고민거리는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나며,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최근 대학에 신설된 간호학과가 늘어나면서 입학정원과 졸업생수의 증가로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제외될 수 없다[4].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학년, 전공, 진로 성숙도 등이 변수로도 작용된다[5].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실패경험이 있는 학생은 자기비하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다[6]. 또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차이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학업과 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학업과 취업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7].

또한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에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8].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만족도와 자존감은 정상관계가 있었고, 우울과 취업스트레스는 역상관계가 나타나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과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0-11],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실습은 물론 취업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12].

선행연구에서 간호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보건계열 대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 종합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의원급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13].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상황과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간호학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스트레스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으며[5,14,15], 간호학과 학생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에 소재한 4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동의를 얻은 해당 간호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배부시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지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설문작성 중에 중도 탈락하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최소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행연구[16]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확증적 연구가 아닌 탐색적 연구로 β 유류가 크면 표본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수준 .05, 예측변수5개, 중간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95로 지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38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의 대상자를 임의 표집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에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6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94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7]가 개발하고, Jeon[18]이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RSES)[18]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 문항이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고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권장할 만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10문항으로 5점 척도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며,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 α =.85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의 도구에 대한 신뢰도 Chronbach' α =.91이었다.

2.3.2 외모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외모만족도 측정도구는 Mendelson과 White[19]의 신체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Shim[20]이 외모만족도 척도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

다. 본 측정도구는 신체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나타내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Shim[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에 대한 신뢰도 Chronbach' α =.90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a[21]가 개발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Lee[2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한다.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으로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4개 영역이 있으며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Ha[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 α =.92이었고, Lee[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 α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95로 나타났다.

2.3.4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 CMI)[23]을 참고하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Hwang[24]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설문지 72문항을 참고하여, Kang[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 검사는 성격 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학업 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항의 총 5개 하위요인,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점 합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 α =.80이었고, 각 하위 항목별로 Chronbach' α 는 성격 스트레스 .84, 가족환경 스트레스 .87, 학업 스트레스 .79, 학교환경 스트레스 .78, 취업불안 스트레스 .7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취업 스트레스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 α =.95이었으며, 각 하위 항목별로 Chronbach' α 는 성격 스트레스 .97, 가족환경 스트레스 .96 학업 스트레스 .98, 학교환경 스트레스 .95, 취업불안 스트레스 .94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령 평균은 24.79세였으며, 23~25세가 146명(75.3%)로 가장 많았으며, '26세이상'이 27명(13.9%), '20~22세'가 21명(10.8%)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이 172명(88.7%), '남학생'이 22명(11.3%)이었고, 종교에서는 '없다'가 117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종교가 있다'가 77명(39.7%)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되므로'가 83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55명(28.4%)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 87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통' 85명(43.8%)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적에서는 '3.1~4.0'이 140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3.0 이하' 40명(20.6%), 4.1이상(7.2%)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4)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0~22	21	10.8
	23~25	146	75.3
	≥26	27	13.9
	M±SD	24.79±5.03	
Gender	Man	22	11.3
	Women	172	88.7
Religion	Yes	77	39.7
	No	117	60.3

Entering nursing college motivation	Aptitude	55	28.4
	According to the entrance examination score	17	8.8
	Recommendation for others	39	20.0
	Easiness seeking job	83	42.8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87	44.8
	So So	85	43.8
	Unsatisfied	22	11.4
Academic achievement	≤3.0	40	20.6
	3.1~4.0	140	72.2
	≥4.1	14	7.2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0.53점이며 최소 1.16점, 최대 4.72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모만족도에서는 평균 2.96±0.56점이며 최소 1.30점, 최대 4.90점이며 전공만족도는 평균 3.80±0.61점이며 최소 2.36점, 최대 5.00점으로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에서는 평균 2.23±0.75점이며 최소 1.00점, 최대 3.9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Satisfaction in major and Employment Stress (N=194)

Variable	M±SD	Min	Max
Self-esteem	3.40±0.53	1.16	4.72
Appearance satisfaction	2.96±0.56	1.30	4.90
Satisfaction in major	3.80±0.61	2.36	5.00
Course satisfaction	3.82±0.54	2.25	5.00
Relationship Satisfaction	3.75±0.45	2.14	5.00
General satisfaction	3.83±0.43	2.12	5.00
Recognition satisfaction	3.79±0.35	2.00	5.00
Employment Stress	2.23±0.75	1.00	3.95
Personality stress	2.13±0.55	1.00	5.00
Family environment stress	2.00±0.65	1.00	4.00
Academic stress	2.26±0.45	1.20	5.00
School environment stress	2.45±0.33	1.00	3.95
Anxiety stress	2.11±0.41	1.00	4.0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연령, 종교, 평균 성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t=7.40, p=.007$), 전공선택동기($F=3.24, p=.023$), 대학생활 만족도($F=16.722,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와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사후검정을 한 결과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보다 '입시성적에 맞추어서'가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만족' 보다는 '보통', '보통' 보다는 '불만족'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Employment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Variables	Categories	Employment Stress			
		M±SD	t/F	p	scheffe's test
Age	20~22	1.95±0.75	2.19	.115	-
	23~25	2.29±0.74			
	≥26	2.13±0.78			
Gender	Man	1.70±0.61	7.40	.007	-
	Women	2.30±0.74			
Religion	Yes	2.22±0.74	.006	.937	-
	No	2.23±0.76			
Entering nursing college motivation	Aptitude ^a	2.04±0.68	3.24	.023	a<b
	According to the entrance examination score ^b	2.65±0.79			
	Recommendation for others ^c	2.30±0.81			
	Easiness seeking job ^d	2.24±0.73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1a}	1.95±0.66	16.72	.000	a<b<c
	So So ^b	3.25±0.76			
	Unsatisfied ^c	2.85±0.56			
Academic achievement	≤ 3.0	2.30±0.81	1.55	.215	-
	3.1~4.0	2.24±0.73			
	≥ 4.1	1.90±0.76			

3.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r=-.433, p<.001$), 외모만족도($r=-.307, p<.001$), 전공만족도($r=-.534, p<.0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는 자아존중감($r=.522, p<.001$), 외모만족도($r=.237,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외모만족도는 자아존중감($r=.44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Satisfaction in major and Employment Stress (N=194)

Variables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Satisfaction in major	Problem solving ability
Self-esteem	1			
Appearance satisfaction	.444 ($p<.001$)	1		
Satisfaction in major	.522 ($p<.001$)	.237 ($p=.001$)	1	
Employment Stress	-.433 ($p<.001$)	-.307 ($p<.001$)	-.534 ($p<.001$)	1

3.5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변수인 성별, 전공만족도, 전공선택동기를 더미 처리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611-.980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20-1.638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지수는 1.561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아 회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공만족도($\beta=-.371, p<.001$)였고, 자아존중감($\beta=-.166, p=.026$), 전공선택동기($\beta=.163, p=.006$), 외모만족도($\beta=-.132, p=.045$), 성별($\beta=.131, p=.033$)의 순서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모두 포함시켰을 때 이들 영향요인들은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총 3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ffected Factors of Employment Stress (N=194)

	B	SE	β	t	p
(Constant)	4.960	.400		12.395	<.001
Satisfaction in major	-.455	.086	-.371	-5.292	<.001
Self-esteem	-.232	.103	-.166	-2.242	.026
Appearance satisfaction	-.178	.088	-.132	-2.015	.045
Gender	.310	.144	.131	2.791	.033
Entering nursing college motivation	.432	.155	.163	2.154	.006
Adj. R ² =.356, F=22.320, $p<.001$					
Dummy variable: Entering nursing college motivation: Aptitude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 ± 0.53 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Jeon[26]의 연구 3.71점, Byun 등[27]의 3.50점보다 다소 낮았다.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모만족도의 평균은 2.96 ± 0.56 점으로 Park과 Kim[15]의 연구에서 남학생 3.24 ± 0.44 점, 여학생 2.89 ± 0.55 점으로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보다는 낮았지만,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평균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3.80 ± 0.61 점으로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Byun 등[2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평균 3.3 ± 0.72 점보다 간호학과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의 평균은 2.23 ± 0.75 점으로 Byun 등[27]의 연구에서의 3.0 ± 0.79 점, Shin과 Cho[28]의 연구결과 2.43점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대학생들보다 아직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은 상황이라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성별, 전공선택동기,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전공은 '입학성적을 고려해서', 대학생활 만족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취업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im과 Lee[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성별, 가구 내 평균 월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외모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Shin과 Cho[28]의 연구와 같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다소 낮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취업스트레스를 덜 받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외모만족도가 높으면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에 대한 결과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한 것[29]과 유사한 결과이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일반 여대생들이 면접시에 외모의 비중이 평가에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3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외모스트레스의 인지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면 본인의 취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학생들이 갖게 되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이다[3].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자아존중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전공만족도가 낮은 대학생은 전공학과에서 부적응 및 진로 목표 부재로 자퇴나 휴학같은 중도탈락률이 높기 때문에[31]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취업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하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공만족도이었고, 자아존중감, 전공 선택 동기, 외모만족도, 성별 순서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시켰을 때 이들 영향요인들은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총 3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과 Cho[2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보고 하였고, Byun 등[2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전공학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된 Jung과 Yang[32]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로 전공만족도는 전공과 진로에 대한 결정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전공만족도나 자아존중감 외에도 전공선택동기와 외모만족도 및 성별이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새롭게 밝혀졌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라고 생각되며, 본 연구는 한 개의 지역에 있는 4개의 간호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때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외모만족도 및 성별의 차이를 포함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외모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공만족도였고, 자아존중감, 전공선택동기, 외모만족도, 성별 순서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모두 포함시켰을 때 이들 영향 요인들은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총 3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외모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와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J. Lee, J. H. You, "The medic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2, No.3, pp.607-689, 2008.
- [2] H. C. Cho,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1, pp.157-187, 2013.
- [3]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H. J. Park,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4, No.2, pp.122-131, 2015.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2.122>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Internet]. Seoul:2017 [cited 2018 September 19].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
- [5] S. H. Kim, S. H. Lee,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27, pp.63-72, 2015.
DOI: <https://doi.org/10.7475/kjan.2015.27.1.63>
- [6] B. S. Park, H. N. Jo, B. J. Park,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pp.1109-1117,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2.1109>
- [7] H. S. Park, Y. J. Bae, S. 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1, No.4, pp.621-631, 2002.
- [8] M. K. Cho, E. J. Choi, J. W. Lee, Y. N. Lee, J. Y.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0, pp.141-150, 2013.
- [9] I. S. Lee,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5, pp.2487-2500, 2011.
- [10] C. S. Kim, "Effects of the pursued job valu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certified qualifications of prospective university graduates on their job search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pp.1-70, 2012.
- [11] E-Y. Cho, J. A. Kim, J-Y. Kim, H-J. Kim, E-S. Ra, H-Y. Lee,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2, No.1, pp.35-43, 2016.
DOI: <https://doi.org/10.17703/JCCT.2016.2.1.35>
- [12] B. David, W. Elizabeth, R. Rachel,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1] S. J. Lee, J. H. You, "The medication effect of

- Policy, Vol.12, No.1, pp.46-51, 2007.
- [13] H. Jeon, M. Le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12, pp.643-651,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643>
- [14] M-O. Chae,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4, pp.229-238, 2019.
<https://doi.org.10.14400/JDC.2019.17.4.229>
- [15] M. Y. Park, T. H. Kim, "A study on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mplex, employment anxiety, employment str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2, No.3, pp.37-46, 2018.
- [16] S. Kim, S. Lee,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7, No.1, pp.63-75, 2015.
DOI: <https://doi.org/10.7475/kjan.2015.27.1.63>
- [17]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8]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Publishing House, Vol.11, pp.109-129, 1974.
- [19] B. K. Mendelson, D. R. White,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ldren", Concordia University Research Bulletin, Vol.12, No.2, pp.1-10, 1993.
- [20] K. O. Shim,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pp.1-62, 2006.
- [21]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p.37-97, 2000.
- [22] S. Y. Lee, "Research on major selection factor, satisfaction of major and employme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pp.1-55, 2009.
- [23] M. Shepherd, B. Cooper, A. C. Brown, G. W. Kalton,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24]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1-60, 1998.
- [25] Y. R. Kang,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pp.1-77, 2006.
- [26] S. O. Kim, Y. J. Jeon,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2, No.4, pp.539-558, 2013.
DOI: <https://doi.org/10.5934/kihe.2013.22.4.539>
- [27] E. K. Byun, S. J. Yoon, K. H. Kim, "The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3, No.3, pp.146-153, 2014.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4.23.3.146>
- [28] K. S. Shin, I. J. Cho, "The effects of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9, No.3, pp.143-160, 2013.
- [29] S. J. Kim, H. H. Kim,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4, No.1, pp.75-84, 2014.
- [30] M. K. Cho, E. J. Choi, J. W. Lee, Y. N. Lee, J. Y.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0, No.2, pp.141-150, 2013.
- [31] S. M. Park,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ntoring function scale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Research, Vol.16, No.1, pp.211-232, 2006.
- [32] Y. H. Jung, J. H. Yang,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employment stress if the pre-service teachers who majo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0, No.3, pp.229-248, 2013.

김경남(Kyoung-Nam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기초간호학, 중환자간호학, 심폐소생술

강 은 희(Eun-Hee Kang)

[정회원]



- 2007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1년 8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기초간호학, 연명치료중단